

제주사회복지신문

제32호

2010년 6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발행인 : 이동한 > 편집인 : 고경윤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화북1동 1112-1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전화 : (064) 702-3783 ~ 4 / 팩스 : (064) 702-3383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사랑 듬뿍 담긴 보금자리 만들어요”

국내 대형 건설사가 1억원 이상을 투자해 수년째 제주 지역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미를 새삼 일깨우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대림산업(주)(대표이사 김종인)의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600여만원을 들여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쳐 저소득 61가구의 집을 아늑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줬다.

올해에도 5월 27일 제주시 박모씨(지체장애 1급)집에서 이동한 회장과 대림산업(주) 이원민 소장,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 소속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발대식을 갖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시작을 알렸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바깥과 어머니의 방 벽을 허물어

주거환경개선사업 발대식...대림산업 6년째 사업비 지원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발대식에 참석한 이동한 회장(왼쪽에서 5번째)과 대림산업 이원민 소장(오른쪽에서 5번째), 자원봉사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협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방을 넓히고 도배지에 풀을 발라 벽과 천장에 붙이며 연신 구슬땀을 흘렸다. 어머니 방에 있던 잡다한 물건들은 비가 들지 않게 새로 유리창을 설치한 간이창고로 옮겼으며, 장판도 새 것으로 갈끔하게 교체했다.

박씨의 어머니는 “조그마한 방에서 아들과 함께 지낸 10년간의 새우잠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2000만원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은 저소득가정 가운데 사회복지사와 대림산업(주) 담

당자 등이 현장방문을 통해 선정한 제주시 11가구와 서귀포시 13가구 등 총 24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및 장판 교체, 지붕 방수공사, 보일러 수리 및 설치, 벽체단열공사 등이 실시된다.

사업에 필요한 전문장비 및 주요 자재 등은 대림산업(주)에서 제공하고, 도배와 장판교체 등 소규모 공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탠다.

이원민 소장은 “2001년부터 제주외향 공사를 시행하면

서 기업이익의 지역환원을 목적으로 5년전부터 해마다 2000만원을 지원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이 사업이 저소득가정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석이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대 아젠다도자사 후보전달

‘2010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은 5월 6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2010 제주사회복지 아젠다 발표 및 전달식’을 갖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7대 아젠다를 전달했다.

★관련기사 7면

7대 아젠다는 ▲사회복지예산 25%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복지특별 보좌관 임용 및 개방형 직위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재단 설립 ▲제주지역 ‘한국사회복지연수원’ 유치이다.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은 취지문을 통해 “사회복지란 베푸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제주사회복지의 희망과 믿음을 이루고자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아카데미 6월 교육 안내

프리젠테이션 활용교육

일시 : 6월 11일(금) 10:00~17:00

내용 : 프리젠테이션기획과 구성 등

자원개발 및 제안서 작성법

일시 : 6월 17일(목) 10:00~18:00

내용 : 프로그램 기획안리와 기법 등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교육

일시 : 6월 18일(금) 15:00~18:00

내용 :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장소 : 사회복지협의회 3층 대강당(공동)

지면소개

종합 2·3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선정
시설 탐방-서호영원

사회복지소식 4·5면

천국의 속삭임·소식마당
중도사각장애인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특집 7면

사회복지 대담회

21세기 제주건설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업



주식 동 부 건 재



代表理事 朴慶燮

제주시 이도2동 415 (학생회관 건너편)

대표전화 : 064) 721-6676

FAX : 064) 721-6675

H.P : 011-536-6667

E-mail : fly-eagle@hanmail.net

◆ 골프장 건설자재 ◆

PE관, PVC관, 파형강관, 스틸그레이팅, 맨홀뚜껑, 와이어메쉬, 토목자재일체

장애인 관광복지 새 패러다임 연다

올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공모사업 선정
年 장애인 관광객 20만명 유치...직업재활모델 제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공모사업에 장애인 관광을 테마로 하는 '제주해피누리 관광복지사업단(이하 해피누리사업단)'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피누리사업단은 국비 15억원과 지방비 15억원 등 모두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장애인 관광복지사업단 ▲장애인 전용 관광안내센터 ▲장애인 복지수련원 ▲장애인 관광 IT 재활공학센터 ▲On-Off 쇼핑몰 등을 운영한다.

장애인 관광복지사업단은

제주여행 관광 서비스 코디와 온라인 장애인복지관광 포털 운영시스템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 전용 관광안내센터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빌려주고 장애인 전용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한다. 또 장애인 복지수련원은 장애 체험 및 레포츠공원과 장애인복지 영상실 및 수련원을 운영하며, 장애인 관광 IT 재활공학센터는 시각장애인용 관광 보조기구 대여와 U-휠체어 전용 단말기를 도입한다. 쇼핑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과 지역 특산품 등을 판매한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연

간 장애인 관광객 20만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100명과 비장애인 30명 등 모두 130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역량을 강화해 장애인 직업재활의 새로운 정책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중증장애인들의 직업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이 제주관광을 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운영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고용률이 정해진 다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유급 고용을 보장하고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분석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희망의 플라잉디스크

5월 25일 제주시 애환운동장에서 열린 제4회 전도 시각장애인 플라잉

디스크대회 및 한·일 국제플라잉디스크 교류대회에서 시각장애인 선수들이 플라잉디스크를 날리고 있다.

중증장애인 대상 상해보험 가입

서귀포시는 장애인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16세 이상 1~3급 중증장애인 3814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기간은 5월 3일부터 2011년 5월 2일까지다.

서귀포시는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

2006년부터 일반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으로 범위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보장범위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장애인 5명이 보험혜택을 받았다.

7월부터 장애인연금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2일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으며,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이전대로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장정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

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의 5%인 9만원으로, 매년 4월 전년도 물가상승분, 소득변동분을 반영할 예정이다.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행정시 통합조서관리팀의 자산조사를 거쳐 최초 시행일인 7월은 30일,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너와 나, 통하는 관계코칭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지난 4월부터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조성 지원사업 '너와 나, 통(通)하는 관계코칭 Project 시즌Ⅱ'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청의 지원을 받아 관계형성을 통한 진로탐색, 소중한 '性' 바로알기, e-세상 주인공 바로 우리, 통하는 상담·캠프, 청소년 권리증진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관계 갈등의 욕구 해소를 통해 긍정적 자아상 확립과



자존감 향상을 돕는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아발견 및 올바른 성과 건전한 인터넷 사용, 타인에 대한 이해 및 감정과 가치관을 교류하는 성숙된 인간관계 형성을 도모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혜정원 아가의집 어울림 한마당

사회복지법인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5월 16일 개원 22주년을 기념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릴레이와 줄다리기 등의 게임을 하면서 생활인, 가족,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한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회복지법인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5월 16일 개

SK에너지(주) 제주물류센터 시각장애인복지관에 후원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일본에서 개최된 동경마라톤대회에 SK에너지 신현철 부회장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 전원이 완주해 받은 마라톤성금이다.

SK에너지(주) 제주물류센터(소장 임광재) 임직원 일동은 5월 24일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을 방문, 시각장애인



일배움터·동부농업기술센터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5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인)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직업적 자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업무협약을 통해 일배움터 장애인에게 전수한 기술의 체계적 관리, 일배움터 생산물의 품질관리, 건조기를 이용한 기술 전수, 농산물생산기술 및 영농기술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일배움터는 지난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동부농업기술센터의 특허기술인 제습건조방식을 도입해 농산물 건조사업을 시행했으며,



그에 따른 신상품 개발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일배움터는 또 5월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지역본부와도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간 친선교류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교환으로 장애인직업재활의식 고취와 사회복지증진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4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830,000	830,000
난치병환아후원	80,000	0
자원봉사후원	975,000	975,000
복지사업후원	1,460,000	327,800
푸드마켓후원	1,390,000	536,34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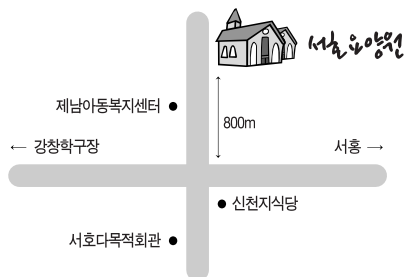
시설탐방

❶ 서호요양원



따뜻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

여름이 바로 문턱에 다가선 듯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날 오전, 노인복지모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서귀포시 서호동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서호요양원(원장 윤세찬)을 방문했다. 서호요양원은 2009년 10월에 문을 열어 일 년도 되지 않은 신생 사회복지시설이다.



지난해 개원한 서호요양원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유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다. 노인성 질환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보호와 요양을 제공·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문화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며 산남지역 대표 노인요양시설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40여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다. 입소한 어르신들은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보살핌과 관심 속에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개인생활보조 및 영양급식관리,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 같은 일상생활 서비스는 물론 보건 위생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다.

서호요양원은 소근육 운동을 강화하고, 손과 뇌의 사용을 통해 치매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숫자퍼즐과 컵 쌓기 등이 이용된다. 그리고 선 따라 그리기와 색칠하기 혹은 사진액자 만들기 등의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은 간단한 도구는 물론 손을 사용해 두뇌활동을 촉진하고 미술을 완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 성취감과 기쁨을 느



“다시 찾고 싶은 요양원 만들기 위해 노력”

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서귀포의료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 이뤄지며, 한 달에 두 번 정신과 전문의의 체크도 병행되고 있다.

특히 서호요양원은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 설계단계에서부터 채광과 통풍에 중점을 뒀다. 건물 안에서도 제주의 청명한 바람과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윤세찬 원장은 “서호요양원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면서

“이런 다방면의 지원에 힘입어 서호요양원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원 직원 모두가 단지 직장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을 내 부모 모시듯, 또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고 싶은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어르신을 대하고 있다”며 “어르신들께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어르신들과 소통이 잘 이뤄지는 요양원, 직원들이 역동적이며 활기차게 일하는 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자 명예기자〉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후 생산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4개 유형에서 2개 유형으로 명확히 개편된 이후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 판매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4월말 현재 장애인 생산제품의 판매 실적은 총 11억1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억6500만원에 비해 16%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장애인 생산제품 판매 실적이 40여억원을 넘을 것으로 제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훈련시설 등으로 세분화돼 운영되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근로작업장과 보호작업장 등 2개 유형으로 개편돼 기능을 확대한 이후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분석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는 지도교사 1명이 추가로 배치돼 ▲작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

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사업과 상품 생산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근로작업장인 춘강장애인근로센터는 직업능력은 있으나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지체 장애인 50명이 칠보공예, 제주 갈옷, 복사용지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 일배움터, 혜정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한라원작업활동시설, 길직업재활센터 등 보호작업장 4곳에서는 직업능력이 낮은 지적장애인 등 123명이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물수건 세탁, 종이컵 제작, 화분·액세서리 만들기, 제과·제빵 등 근로강도가 다소 낮고 반복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주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 후 장애인들의 참여가 늘고 이들이 생산한 제품의 매출실적도 크게 성장함에 따라 직업재활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가족여행으로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장애인가정의 화합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장애인가정 웰빙페스티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실시되는 이 사업은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 사회 38개 사업체와 MOU를 체결, 업체의 후원을 받아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후원업체의 물품 및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후원사업이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분기별로 컨셉과 테마를 정한 뒤 그에 맞는 업체의 후원을 연계해 도내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사연을 접수받아 후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시간 보내기’라는 컨셉으로 진행된 2010년 제1차 사업에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의 테마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복지

관 홈페이지와 주요행사의 현장접수를 통해 사연접수를 받았다. 이들 중 30가구를 선정, 각 가정별로 3~4개 업체의 후원서비스가 제공됐다. 후원은 숙박업체, 관광업체, 레포츠업체, 제과제빵업체, 음식점, 미용실, 사진스튜디오 등과 연계해 이뤄졌다.

양모군(지적장애)은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업체의 후원과 복지관의 배려 등으로 편안한 가족여행의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며 감사해했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재가 장애인가정의 화합을 도모해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자원발굴을 확대해 더 많은 장애인가정을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해요 가정위탁’ 체험활동실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기념해 위탁가정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해요, 가정위탁’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서부농업기술센터, 예술인의 마을 등을 방문, 체험활동을 벌였다.



문화로 하나 되는 제주를 꿈꾼다

제주가톨릭문화원 '천국의 속삭임'

날씨가 유난히 상쾌한 일요일 오후,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가톨릭문화원에 들어서자 5살 되나마나한 어린아이부터 50대 어머니까지 왁자지껄함 속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오후 2시 수업이 시작되자 드럼반은 1강의실, 기타반은 2강의실로 학생들은 순식간에 들어가 말소리 대신 악기소리로 문화원이 가득찼다.

한쪽 방에선 드럼스틱으로 패드를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고 다른 한 곳에선 서툰 손놀림으로 통기타줄을 튕긴다. 선생님들은 분주히 뭔가 끊임없이 설명하며 수강생들에게 주법을 가르친다.

한 시간 쯤 지나자 미술선생님이 등장, 아직 학교에 안다니는 유아기 어린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까지 모두 모여 함께 그림그리기를 한다. 우선 바탕색을 가득 칠하고 그 안에 자신이 생각하는 무언가를

그려 넣기 시작한다.

이렇게 각 수업이 진행되고 잠시 후 다들 다른 한 곳으로 모여든다. 간식시간이다. 과자, 음료수 또는 커피, 각자 취향대로 골라서 먹다가 또 들어가서 연습을 한다.

이제 막 기타를 배운지 2주 정도 지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아이돌밴드의 히트곡을 곧 연주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신나게 기타를 치며 즐거워한다.

제주가톨릭문화원은 문화를 통해 더 즐겁고 활기찬 삶을 살며 함께 사는 이웃과 기쁨을 나눈다는 취지로 2007년에 문을 열어 올해에는 '천국의 속삭임'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달고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비인간 문화학교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인성과 예능을 골고루 발달하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열정과 봉사정신은 물론 실력까지



겸비한 강사진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제주가톨릭문화원 김연정 원장은 "처음 시작할 때는 부담이 컸었지만 뜻이 통하는 선생님들과의 소중한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함께 운영할 수 있어서 지금은 걱정보다 행복감을 느끼고요.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한 꿈을 꿀 수 있고 가정 안에서는 문화적 공감대

를 통해 화목하고 더 나아가 제주사회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제주가톨릭문화원은 이 외에도 보컬, 건반 및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문의=755-0345, 010-5778-1461(김연정 원장)

club.cyworld.com/whisper-sky

〈양정선 명예기자〉



섬김과 나눔의 효도잔치

제주순복음음악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5월 7일 제주시 건입동 지역 어르신 200여명을 모시고 제4회 섬김과 나눔의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건입동주민자치센터 난타동아리의 난타공연, 한얼메아리에술단의 민요·마술공연, 율곡어린이집과 내친구어린이집의 재롱잔치 등 풍성한 축하공연이 이어졌으며, 어르신 프로그램 욕구조사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골프체험 등 행복한 어린이날

제남아동복지센터는 5월 5일 제88회 어린이날을 맞아 롯데스카이힐 제주CC와 행복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어린이들은 이날 골프 퍼팅 체험, 카트 시승식, 문신타투 및 세족식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기며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냈다.



경로당순회 법률상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관장 전영록)은 5월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와 연계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경로당에서 재산상속 및 주위 토지통행권, 전화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5월 식품기탁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2ℓ 1800개, 감귤주스 150ml 1000개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88kg ▲서문식품=두부 384모 ▲김치원=김치 60kg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샘봉사회=쌀 외 생필품 113개 ▲이여도지역자활센터=유기농상추 120kg ▲고용범=김 3상자 ▲허진=밀가루 2봉, 설탕 2봉, 사탕 2봉

소/식/마/당

2010 평화의 섬 마라톤대회 참가



가롤로의 집 생활인과 직원들은 4월 25일 제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열린 '2010 평화의 섬 제주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열정의 레이스를 펼쳤다.

대회에 참가한 생활인과 직원들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봉사단과 함께 뛰면서 따뜻한 정을 나눴으며, 참가자 모두 5km를 완주해 주위의 박수를 받았다.

제일지역아동센터 1박2일 캠프 개최



아동복지시설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는 5월 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제주금능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늘 향해 크는 아이들의 소원 실현은 보물선'이라는 테마로 캠프를 개최했다.

KB국민은행, EBS나눔플러스, 대우증권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프시케월드 나들이, 또래 친밀감 세족식, 서바이벌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가족관계증진 '달려라 마미' 진행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복지관 소회의실에서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달려라 마미'를 진행하고 있다.

'달려라 마미'는 저소득 모자家庭이 가족활동과 여성가정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자조집단을 형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5월 14일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를 시작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프로그램 '날려버려, 스트레스!'를 실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노인세대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이 사업은 도내 노인복지시설의 신청을 받아 오는 10월까지 10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귀포복지관, 우리동네 효도관광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5월 13일 동홍주공아파트 3단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60여명을 모시고 우리동네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이날 어르신들은 서귀포유람선에 승선해 제주의 멋진 절경을 감상하고, 김영갑갤러리와 김녕미로공원을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도자원봉사센터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5월 13~14일 이틀간 정부 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회의실에서 '2010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전문자원봉사자 아카데미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지도자들의 지역사회 공동체 참여확대와 기관·단체 교육증진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중도시각장애인 심리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어느 날 갑자기 한 줄기 빛도 볼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암흑의 세상이 내게 찾아와 오로지 만지고 향기를 맡고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만 살아가야 한다면 어떨까?’ 생각만으로 답답하고 반아들이기 벅찬 일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의 75%가 시각에 의해 습득돼 활용되어 진다고 하는데 중도에 시력을 상실하는 중도시각장애인 90% 이상이 사고나 백내장, 녹내장 등의 질병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장애 발생 후 달라진 신체적 기능과 외관에 대한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의 부정적인 심리를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아가 재활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으려 할 때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 ‘옛 제주시

제외한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미각의 오감을 자극해 몸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몸의 신체활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춤동작치료, 향기치료, 요리치료, 음악치료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인 김관영(시각장애 3급)씨는 “각각 손상으로 찾아온 시력 상실로 하루를 한 달처럼 힘겹게 지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일상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깨고 이제는 희망의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진인화(시각장애 1급)씨는 “네 가지 프로그램 모두가 특색 있고 좋지만 그 중에서도 아로마테라피를 받는 향기치료를



△창은아 음악치료사가 중도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받을 때면 열 지식 하나 안 부럽다”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양정선 사회복지사는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대상자들은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는 것을 꺼려하고 많이 예민하고 긴장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봄만큼이나 표정이 밝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각장애인의 경우 가족, 주변사람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지 정도가 약해 이들이 적절한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하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확충돼야 한다”고 했다.

〈김용성 명예기자〉



정혜재활원 직업재활농장조성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자립심 함양과 협동활동을 통한 사회적 증진을 위해 서귀포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홍동에 직업재활 농장을 조성했다.

1500평 부지에 조성한 직업재활농장에는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 재래종 감나무와 매실나무 등의 유실수를 심었다. 농장 한편에는 체질 개선과 당뇨환자의 혈당수치를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야콘을 심었다.

정혜재활원은 이용자들이 ‘나의 나무 가꾸기’ 활동의 일환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자신의 나무를 정성스레 가꾸며 재활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부모님과 함께 한다도 “한층 성숙해졌어요”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시설장 박미란)는 5월 16일 부모님들과 독거노인들을 초청, 다도예절 시연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다도예절교실을 통해 차예절을 비롯해 인내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등을 배운 학생들은 이날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정성스레 차를 대접했다.

행사에 초청받은 부모들

은 자녀들과 차를 함께 마시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며, “바른 자세로 한복을 입고 다소곳하게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한층 성숙해진 것 같다”며 흐뭇해했다.

홍유림(세화중 1)양은 “차를 마시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예를 갖추어 마시는 차는 빛깔도 더 맑고, 향기는 더 그윽하고, 맛은 더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는 2010년 복권기금 청소년야간보호사업을 제주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받아 ‘구좌읍 청소년들 가슴에 별을 달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양로원서 봉사활동

제주지방법원 삼다봉사단

제주지방법원 삼다봉사단은 5월 19일 제주양로원·제주요양원을 찾아 휠체어 3대를 기증하고 시설 외부 잡초제거 등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박흥대 법원장 등 25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삼다봉사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후원과 봉사의 손길을 제공하고 있다.



서호요양원 어버이날 행사

서호요양원(원장 윤세찬)은 5월 8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산비탈봉사단과 함께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했다.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 가족, 자원봉사자 및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난타공연, 댄스공연, 박현주 선생님(서귀포문성학교 강사)의 장구춤 순으로 진행됐다.

산비탈봉사단은 지난 2월 연극공연 이후 2번째 서호요양원에서 공연을 펼쳤다.

창암재활원 5주년 기념식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은 5월 15일 개원 5주년을 맞아 ‘창암재활원 5주년 기념식 및 HOME COMMING DAY’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걸어온 창암재활원의 발자취가 소개됐으며, 창암복지재단 부설기관인 창암교육활동센터와 창암재활원 직원들이 준비한 댄스 및 음악치료공연과 한효심 휘트니스댄스팀, 명품동아리댄스스포츠팀, 장애인휠체어댄스팀이 함께 멋진 축하공연을 펼치며 자리를 빛냈다.

또 참석자들이 창암재활원 주변에 직접 작은 묘목을 심고 자신의 이름을 꽂아 창암재활원과의 꾸준한 관계형성의 계



기를 마련했다.

박광수 원장은 “‘중증장애인들의 기초생활능력 향상과 사회·심리적 환경 개선 및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자립생활을 실현한다’는 창암재활원의 철학을 중심으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창암재활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0제주케어하우스가족한마당

제주케어하우스(원장 김정현)는 5월 15일 입소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 제주케어하우스 가족한마당’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정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어우러지는 만남의 시간을 통해 입소 장애인과 가족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해 마련돼 다양한 게임과 보물찾기, 감사편지 낭독, 노래자랑이 이어져 참가자들은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특히 행사 마지막에는 생일을 맞은 입소 장애인 가족의 생일잔치가 열려 가족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았다.

칼럼

탈수급(脫受給)을 위한 자활사업



문 익 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 소년과장

각인의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빈부의 격차는 이념적 정체성의 필연적 결과이다. 자본주의의 취약점인 빈부격차문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정한다. 그래서 경제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아우르는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할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자본주의 병폐를 치유하고, 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제주자활성공률 14% 전국상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저소득층 1만2000여

가구 2만4000여 명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구호의 소비적 복지에 안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를 위해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선정하여 탈 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추진으로 탈 수급의 능동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제주도에는 4개소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 등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도에는 43개 자활근로사업단과 21개 자활공동체가 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참여자들의 협동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출시한다. 특히 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제주의 청정 환경에서 채취한 조릿대, 후지썬, 두충 등을 재료로 야생초차를 제조하고, 자스민과 로즈메리를 이용한 화장품, 천연비누 등을 생산·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공해 야생차는 독특한 향과 맛으로 시장반응이 좋아 대형마트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수놓음지역자활센터에서는 무공해 유기농을 원료로 건강식 식당을 운영하여 참살이 시대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을 시행한다. 간병

사업, 집수리, 청소, 음식물 재활용, 환경정비 등 공익적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자활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1200여 명의 고용창출과 자활기금을 적립하면서 자활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자립 위한 능동적 복지 지향

2009년 말 현재 제주도의 자활성공률은 14%로 미미한 것 같지만 전국 상위 실적이다. 시장진입과 이윤추구가 녹록치 않다. 안정적인 유통망과 판로, 자활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 홍보 등 모든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활자립의 길은 험난하고 아득하다.

이제 자활상품 전시와 기능경연, 상품판매, 홍보 등 자활의 활력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소비자가 감동하는 독특한 상품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냉엄한 현실을 극복하는 길이다. 앞으로 자활사업은 지역밀착형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시장진입과 자활공동체를 위한 자활기금도 상향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시론

행동하는 어른이 필요하다

진한 커피향이 당겨 길을 나섰다. 요사이 자주 걸어서 다니는 나를 대견하게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이른 여름이 온 듯 짙하게 내리쬐는 햇살에 갑자기 멍해진다. 길 가장자리에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본다. 얼마 만에 올려다



고 보 선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보는 하늘인가? 실눈을 뜨고 다시 올려다본다. 아주 파랗다. 조각조각 흩어진 구름을 감싸고 있다. 조금씩 움직이는 조각구름이 서로에게 말을 거는 듯하다. 그러다 작은 구름이 큰 구름과 하나가 되기도 하고 큰 구름에서 떨어져 나와 조각구름이 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며 대화하던 나를 떠올리며 참으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악수를 청하듯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본다.

욕설 난무하는 현실에 조언자 역할 해야

차집에 도착하니 알아듣기 어려운 소리들이 시끄럽게 뒤엉켜 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친구를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본다. 수업을 막 끝내고 온 듯한 교복차림의 여학생들이 꾹꾹한 모습으로 재잘거린다. 그들의 대화가 궁금해 귀를 세워보았다. 알아듣기가 어렵다. 왜 일까?

갑자기 그들의 대화가 궁금해져 다시 한 번 자세를 고쳐 앉아 그들의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본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분명해졌다. 음악소리와 경쟁하듯 한꺼번에 질러대는 소리의 탓도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 섞여서 쏟아져 나오는 욕설들은 마치 일상 언어인 듯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순간 그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안타까웠다. 갑자기 단정하게 차려입은 교복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얼굴이 달아오른다.

얼마 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욕설 섞인 대화의 내용이 궁금하여 물으니 고리타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들과 소통하기 힘든 사람 대하듯 고개까지 절레절레 저으며 자리에 돌아갔다. 찬버람을 물고 뒤돌아선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다시 묻고 싶어 한 걸음 내딛었지만 벌써 나는 쓴웃음을 짓고 있었다. 순간 그들이 낮설게 느껴져 뒤로 물러섰다.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학생들에게 건강에도 해롭고 공부에도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는 등 뒤로 욕설과 함께 침을 뱉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우리에게는 행동하는 어른이 필요하다. 설령 누군가로부터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듣더라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된다. 눈과 마음, 그리고 귀를 열어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서로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하는 이유이다.

바로 내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열기로 온갖 언어들이 난무하다. 언어는 그 사람의 머리와 마음이 빚어낸 소리이다. 이 소리는 행동을 만들어내고 현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의 말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누군가의 한마디로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이것이 언어의 힘이기도 하다.

조금 전까지 재잘거리던 학생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번번한 충고나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 다시 얼굴이 달아오른다.

기고

행복바이러스가 산울림처럼



조 성 연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생활지원담당

매월 초마다 이번 달은 어느 때를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실시할까 고심해 본다.

우리 면 관내는 10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촌지역이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많으며 매월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한 가구를 선정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가정, 생활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남자 어르신 홀로 살고 있어 집안이 엉망인 가정, 엄마가 계시지만 장애로 앞을 전혀 볼 수 없어 집안 전체가 그야말로 난장판인 가정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적지 않다.

매월 실시하면서 어떤 때는 밤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며 일하다가도 몇 시간 후 달라진 환경을 돌아보면 뿌듯하고 마음 가득 행복한 느낌이 절로 든다. 남을 도와줄 때 자신이 행복해진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

표선면 직원으로 구성되어 2007년부터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내 일처럼 하나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기에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선정된 복지서비스 대상가구에 대하여는 사전 점검을 통해 집안 청소 및 집 주변 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노후된 전등교체, 도배, 장판지 교체 및 수선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는 표선면 직원들이 매월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충당해 나가고 있다.

2007년 3월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표선면 직

원들을 중심으로 420여명이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지금까지 총 31가구에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였다. 올해부터는 노력봉사에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직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표선면부녀회 등 관내 단체 회원들까지 봉사 참여자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희망과 행복을 이어주는 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망(행복e음)이 올해부터 구축되어 찾아가는 방문상담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더불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관내 단체 회원 등 참여가 확산되고 있어 행복지수가 한층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표선면은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성금기탁 등 자발적인 분위기가 확산된 곳이다. 이제는 금전적인 도움 외에 가정을 아름답게 꾸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자그마한 봉사가 산울림처럼 주위에 널리 퍼져 제주를 지나 전국으로 확산되길 소망해 본다.

❑ 제주도지사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대담회

예산확대 · 처우개선 등 7대 아젠다 수용

‘6·2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대담회’가 5월 25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렸다.〈사진〉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제주지사 후보들은 ‘2010 제주 사회복지 아젠다 포럼’에서 제시한 7대 아젠다에 대해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7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각 후보들의 사회복지 정책을 살펴본다.



“복지 제일 제주사회 건설”

—— 민주당 고희범 후보 ——

고희범 후보는 “택지개발이나 도로 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원의 일부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복지 제1의 제주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역설했다.

▲**사회복지예산 25% 확보**=〈가칭〉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사회복지예산의 최저선을 명시하고, 예산편성 시 최우선적으로 사회복지/보건 예산 25%이상 편성.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는 사회복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예산의 범주 및 기준 확립, 예산 최자선 등을 명문화할 뿐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조례’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0만원으로 상향 지원 및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인건비 보장,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고용직원 충족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민·관·학의 협력적인 팀을 구성해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가칭〉제주형 사회복지모형’ 마련.

▲**복지특별 보좌관 임용 및 개방형 직위 신설**=사회복지 특별 보좌관 신설 및 복지 관련 개방형 직위 도입,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 시 명문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재단 설립**=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가칭〉제주 사회복지 연구원’을 설립, 설립 논의 초기에는 제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차츰 제주발전연구원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연구 전문기관으로 추진.

▲**제주지역 ‘한국사회복지연수원’ 유치**=복지제주의 이미지 제고 및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무장애 모범 시설 ‘〈가칭〉제주 사회복지 컨벤션 센터’ 건립.

“복지재정 확충에 주력”

—— 무소속 현명관 후보 ——

무소속 현명관 후보는 “따뜻한 사회, 건강한 사회, 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 있고 차별 없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가장 먼저 지방재정의 충실화와 복지재정의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예산 25% 확보**=도민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예산 25% 이상 편성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제주지역의 보편적 복지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 기본조례’, ‘자활지원 조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고 사기진작과 전문적 종사자로서의 자긍심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인건비 보장 및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0만원으로 인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접근성, 시의적절성 등을 증대시키고 제주지역 복지환경에 부합하는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모델’ 구축.

▲**복지특별 보좌관 임용 및 개방형 직위 신설**=사회복지관련 정책 건의와 도지사와의 사회복지계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책보좌관 임용, 민간사회복지전문가를 공무원 정원의 20% 이내에서 개방형 공무원으로 임용(3·4·5급 포함), 정책보좌관과 여성특보 업무에 사회정책과 여성복지, 보육업무를 추가하는 방식 채택.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재단 설립**=사회복지정책과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복지재단’ 설립, 기초 단계로 현 제주발전연구원의 한 센터로 운영하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부서를 확대 편성하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복지센터와 연계.

▲**제주지역 ‘한국사회복지연수원’ 유치**=제주지역 경제활성화 및 관광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제주지역 ‘한국사회복지연수원’ 유치.

“사회적기업 집중 육성”

—— 무소속 우근민 후보 ——

무소속 우근민 후보는 “장애인, 노인, 청년실업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분야에 과감히 투자, 연계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예산 25% 확보**=사회복지육구가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어 사회복지예산 증액 필요, 제주도민의 사회복지 적극적 보호와 양극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예산의 연차별 증액을 통해 제주도 예산의 25%까지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 및 세부조례로서 ‘자활지원 조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종사자에 대한 복지카드 지급, 처우개선 지원금 최고 20만원까지 상향조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제주형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모형’ 구축과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간 교류를 통한 환류시스템 개발, 무한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복지특별 보좌관 임용 및 개방형 직위 신설**=특보의 역할보다는 담당관의 역할이 중요, 사회복지업무담당 서기관, 사무관을 사회복지전문가로 임용.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재단 설립**=사회복지단체들의 분산을 초래할 수 있어 기존의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확대해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기능, 제주발전연구원 내에서 연구 업무를 진행하는 방안 적극 검토.

▲**제주지역 ‘한국사회복지연수원’ 유치**=사회복지 관련 전국 규모 행사 유치, 제주지역에 ‘한국사회복지연수원’ 유치 적극 노력,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교육과 회의장소로 활용.

나눔 + 희망 = 행복

1004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봉사활동을 클릭해주세요!



1004 지역사회봉사단이란?

개인이나 동아리(단체)가 가진 능력을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단체 등의 욕구에 맞춰 제공하기 위해 조직한 전문봉사단

신청방법

On-Line : www.vms.or.kr 가입 및 신청

Off-Line : (국번없이) 1688-1090

주최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한국사회복지협의회